

변화된 도시 여건 반영 · 정비사업 추진 기반 강화

전주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

전주시가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변화된 도시 여건과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예정구역 8개소를 지정하고, 용역을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희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접수 받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우이10길 인근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6개소와 신일·쌍용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개소, 인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1개소로 총 8개소를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한다.

또한 시는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역을 인센티브로 정비해 인센티브 부여 항목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달 중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7~8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건설업계의 수주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늘푸른어린이집과 데시앙우리아린이집, 세안어린이집, 아이월드어린이집, 아침해어린이집 등 전주·완주지역 5개 어린이집은 9일 전주시복지재단에 기부금 261만 원을 전달했다.

전주·완주5개 어린이집, 나눔 실천

'겉GO! 줌GO! 놀GO! 그린챌린지' 수익금 261만원 기부

전주와 완주지역 5개 어린이집이 환경보호 실천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3년째 따뜻한 나눔을 이어나가고 있다.

늘푸른어린이집(원장 고유정)과 데시앙우리아린이집(원장 전혜경), 세안어린이집(원장 이영), 아이월드어린이집(원장 이미자), 아침해어린이집(원장 정미경) 등 전주·완주지역 5개 어린이집은 9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기부금 261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5개 어린이집이 연합해 지난해 1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야외마당에서 실시한 '겉GO! 줌GO! 놀GO! 그린챌린지' 행사의 참가비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했다.

'겉GO! 줌GO! 놀GO! 그린챌린지'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구에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3년째 추진해온 행사로, 5개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린이집과 연합해 매년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참여를 원하는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는 전화(063-281-0030)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택공급 활성화... 적극 행정 결실

감나무골 등 연내 약 2800세대 규모 신규 주택공급

전주시의 적극 행정과 규제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나가면서 지역 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시는 올해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과 금암동 주상복합, 송천동 예코시티 16블럭 공동주택 등 주요 공동주택 건설사업들이 연내 준공되면 약 28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인 건설경기 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민간 공동주택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힘써 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분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항장 간담회 등 현장 행정과 소통 행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통합심의 운영과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왔다.

그 결과 서신동의 숙원 사업 중 하

나이자 1914세대 대단지를 조성하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시는 △관계기관 협의 적극 지원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힘써 왔다.

이를 통해 금암광장 인근에 315세대의 금암동 주상복합 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고, 예코시티 내 마지막 일반반양 단지인 16블럭을 통해 576세대

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에 힘써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감나무골과 금암동 주상복합, 예코시티 16블럭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공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민간사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시대 유지보수 쉬운 코드 작성 품질기술교육' 실시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 이하 진흥원)은 9일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1층 교육실에서 전북 지역 ICT·SW기업 재직자와 IT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AI시대 유지보수 쉬운 코드 작성 품질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생성형 AI와 코딩 도구가 개발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과 인재들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최근 개발 현장에서는 AI를 활용해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코드를 빠르게 만드는 것을 넘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의 중요성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9일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1층 교육실에서 전북 지역 ICT·SW기업 재직자와 IT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AI시대 유지보수 쉬운 코드 작성 품질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가 작성한 코드라도 최종적인 검증과 운영은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만큼, 테스트하기 쉬운 코드 구조와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 역량이 소프트웨어 품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진흥원은 이번 교육에서 테스

트 작성이 어려운 코드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고, 코드 구조 개선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또한 응집도와 결합도, 캡슐화 등 설계 품질 요소가 실제 테스트 생산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실습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코드 구조에 따라 테스트 작성 난이도와 수정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테스트 용이성과 설계 품질 관계 분석 △테스트 가능한 코드 구조 비교 △AI 기반 개발 환경에서의 리팩터링 비용 분석 등 현장 적용성을 높인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지역 ICT·SW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현장점검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완산구 평화동 일원의 화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중인동 갈마제를 차례로 방문해 우기 대비 재해취약시설 안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와 저수지 제방 안전사고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점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해취약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우 시장은 화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우기 대비 현장 관리상태를 확인했다.

화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평화동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성공원 우수저류조와 화소제 우수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 시장은 이어 완산구 중인동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인 갈마제를 방문해 우기 대비 시설물 관리상태와 사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저수지 주변 안전관리와 주민 대피 계획, 상황 전파 체계 등 현장 대응 전반을 확인하며, 선제적 안전관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난 대응은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먼저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해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남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